

獨樂堂(독락당)

朴仁老(박인로)

1

紫玉山(자옥산)¹⁾ 名勝地(명승지)에 獨樂堂(독락당)이²⁾ 蕭灑(소려)³⁾함을
 들런 디 오래로되
 이 몸이 武夫(무부)⁴⁾로서 海邊事(해변사)⁵⁾ | 孔棘(공극)⁶⁾거늘
 一片丹心(일편단심)에 奮義(분의)⁷⁾를 못내 ㅎ야
 金鎗鐵馬(금창철마)⁸⁾로 餘暇(여가) 업시 奔走(분주)터가
 中心景仰(중심경앙)⁹⁾이 白首(백수)¹⁰⁾에 더욱 汲혀
 竹杖芒鞋(죽장망혜)¹¹⁾로 오날사 ㄷ자 오니
 峯巒(봉만)¹²⁾은 秀麗(수려)ㅎ야 武夷山(무이산)¹³⁾이 되어 잇고
 流水(유수)는 盤回(반회)¹⁴⁾ㅎ야 後伊川(후이천)¹⁵⁾이 되었느다
 이러흔 名區(명구)¹⁶⁾에 임직 어이 업도련고¹⁷⁾

자옥산 명승지에 독락당이 깨끗함을
 들은 지 오래로되,
 이 몸이 무인으로 바다 일이 급박하여
 일편단심 분의를 떨치어 내
 금창 철마로 여가 없이 분주타가
 마음속에 사모하다 흰 머리에 더욱 깊어
 죽장망혜로 오늘에야 찾아오니
 산봉우리 수려하여 무이산이 되어 잇고
 유수는 휘감아서 후이천이 되었구나.
 이러한 경관에 임자 어이 없듯련고.

-
- 1) 현재 경주에 있는 산 이름.
 - 2) 이언적이 머물며 제자를 가르치던 집채 이름.
 - 3) 맑고 깨끗함.
 - 4) 무인, 군인.
 - 5) 바다의 일, 여기서는 작가가 수군(水軍)에 복무할 때를 일컬음.
 - 6) 대단히 급박함.
 - 7) 충의를 떨침.
 - 8) 금으로 된 창과 쇠로 된 말, 곧 좋은 무기.
 - 9) 마음속으로 (이언적을) 깊이 사모함.
 - 10) 흰 머리
 - 11) 대나무 지팡이와 짚신
 - 12) 꼭대기가 뽕족뽕족하게 솟은 산봉우리.
 - 13) 송나라 학자 주희가 살았던 산.
 - 14) 휘감아 둥.
 - 15) 송나라 학자 정이가 살던 곳이 이천이었기에, 조선의 이언적이 살고 있는 이천을 후이천이라 함.
 - 16) 산수가 좋아 널리 이름난 고장.
 - 17) 이언적이 세상을 떠났기에 임자가 없다고 함.

2

一千年(일천년) 新羅(신라)와 五百載(오백재) 高麗(고려)에
 賢人(현인) 君子(군자)들이 만히도 지닌 마는
 천간지비(天慳地秘)¹⁾ ㅎ야 我先生(아선생)²⁾ 씨 기치도다
 物各有主(물각여주)³⁾ | 어든 득토리 이실소냐
 靑蘿(청라)⁴⁾를 헤쳐드려 獨樂堂(독락당)을 여려너니
 幽閑(유한)⁵⁾ 景致(경치)는 견홀디 너야 업닉

일천년 신라와 오백년 고려에
 현인 군자들이 많이도 왔지만은
 하늘이 아끼고 땅이 감추어
 내 선생을 남기었다.
 사물은 저마다 주인이 있다한들
 다툴 이 있을 소냐.
 청라를 헤쳐 들어 독락당을 열어 내니
 그윽한 경치는 견줄 데 전혀 없네.

1) 하늘이 아끼고 땅이 숨김.
 2) 이언적을 가리킴.
 3) 사물이 다 주인이 있음.
 4) 푸른 담쟁이덩굴
 5) 조용하고 그윽함.

3

千竿脩竹(천간수죽)¹⁾은 碧溪(벽계)조차 둘러잇고
萬卷書冊(만권서책)은 四壁(사벽)의 사혀시니
顏曾(안회)²⁾이 在左(재좌)하고 游夏(유하)³⁾는 在右(재우)흔듯
尙友千古(상우천고)⁴⁾하고며 吟詠(음영)을 일을 삼아
閒中靜裏(한중정리)⁵⁾에 潛思自得(잠사자득)⁶⁾하고야
獨樂(독락) 이 일홈 稱情(칭정)⁷⁾흔 줄 그 닐 알리.
司馬溫公(사마온공)⁸⁾ 獨樂園(독락원)이 아무려 조타 흔들
其間眞樂(기간진락)⁹⁾이야 이 獨樂(독락)에 더로손가

무성한 대숲은 벽계 좇아 둘러 있고
만권 서책은 네 벽에 쌓였으니
안증은 좌에 있고 유하는 우에 있는 듯
경전을 숭상하여 독서로 일을 삼아
한가하여 고요한 데 깊이 생각하기를
혼자 즐겨 하시었다
독락 이 이름이 뜻에 맞은 줄 그 닐 알리.
사마온공 독락원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간 즐거움이 이 독락에 더할 손가.

-
- 1) 몹시 우거진 대나무 숲.
 - 2) 공자의 제자인 안회와 증삼.
 - 3) 공자의 제자인 자유와 자하.
 - 4) 천 년 전의 옛 벗을 숭상함, 여기서 옛 벗은 유학 경전.
 - 5) 한가하고 고요한 가운데
 - 6) 깊이 생각하여 혼자 깨달음.
 - 7) 뜻에 맞춤.
 - 8) 북송의 재상이었던 사마광.
 - 9) 그간의 즐거움.

4

尋眞(심진)¹⁾을 못늚 햏야 養眞菴(양진암)²⁾의 도라 드러
 臨風靜看(임풍정간)³⁾햏니 늚 쫏도 瑩然(형연)⁴⁾햏다
 退溪先生(퇴계선생) 手筆(수필)이 眞得(진득)인 줄 알 리로다
 觀魚臺(관어대)⁵⁾ 늚려오니 쫏은 덧햏 盤石(반석)⁶⁾의
 扶屨痕(장구햏)⁷⁾이 보이늚닷
 手栽長松(수재장송)⁸⁾은 냇뵈출 쫏여시니
 依然物色(의연물색)⁹⁾이 그 더욱 반가울샤

신선을 못내 구햏 양진암에 돌아들어
 좋은 경치 찾아보는 내 뜻도 아름답다.
 퇴계선생 남긴 글이 진리임을 알 리로다
 관어대 내려오니 깔린 듯햏 반석에
 선생의 지팡이와 신발자국 보이는 듯
 손수 심은 소나무는 햏 뵈을 띠었으니
 햏 그대로 물색이 그 더욱 반가울샤

-
- 1) 진리(신선 세계)를 찾음.
 - 2) 이연적이 후학을 가르치던 집채.
 - 3) 경치를 고요히 바라봄.
 - 4) 맑고 아름다운 모양.
 - 5) 물고기를 구경할 수 있는 높은 언덕.
 - 6) 넓고 평평한 바위.
 - 7) 지팡이와 신발 자국.
 - 8) 손수 심은 소나무.
 - 9) 햏날과 다름이 없는 경치.

5

神淸氣爽(신청기상)¹⁾호야 芝蘭室(지란실)²⁾에 든 듯하다
 多少古跡(다소고적)³⁾을 보며 문득 생각하니
 層巖絶壁(층암절벽)은 雲母屏(운모병)⁴⁾이 절로 되어
 龍眠妙手(용면묘수)⁵⁾로 그린듯시 버려 있고
 百尺澄潭(백척정담)⁶⁾에 天光雲影(천광운영)⁷⁾이 얼희여 잠겨시니
 光風霽月(광풍제월)⁸⁾이 부는 듯 비치는 듯
 鳶飛魚躍(연비어약)⁹⁾을 말업슨 벼슬 삼아
 沈潛翫索(침잠완색)¹⁰⁾호야 聖賢事業(성현사업)¹¹⁾ 호시뎠다
 淸溪(청계)를 빗기 건너 釣磯(조기)¹²⁾도 宛然(완연)¹³⁾홀사
 문노라 白鷗(백구)들아 네 날을 아노산다
 嚴子陵(엄자릉)¹⁴⁾이 어니 희에 漢室(한실)¹⁵⁾로 가단 말고
 苔深磯上(태심기상)¹⁶⁾에 暮煙(묘연)¹⁷⁾만 잠겨셔라

마음이 시원하여 향기로운 방에 든 듯.
 옛 자취를 보며 문득 생각하니
 층암절벽은 운모 병풍 절로 되어
 용면의 숨씨인 듯 그림처럼 펼쳐 있고
 깊은 못에 하늘 구름 어리어 잠겼으니
 비온 후 바람 달빛 부는 듯 비추는 듯
 나는 솔개 뛰는 고기 말 없는 벼슬 삼아
 정성스레 책을 읽어 성현 사업 본받도다.
 맑은 물을 비껴 건너 낚시터도 완연한데
 문노라 백구들아, 옛일을 알고 있나
 엄자릉이 어느 해에 한실로 갔단 말고
 이끼 낀 모래톱이 저녁 안개 잠겼어라

-
- 1) 정신이 맑고 속이 시원함.
 - 2) 향기로운 지초와 난초가 자라는 땅, 곧 선량한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
 - 3) 수많은 옛 자취.
 - 4) 운모석으로 된 바위 병풍.
 - 5) 송나라 명화가인 용면거사 이공린의 뛰어난 그림 숨씨.
 - 6) 맑은 물이 가득한 매우 깊은 못.
 - 7) 맑게 갠 하늘.
 - 8) 비온 뒤의 맑은 바람과 맑은 달.
 - 9)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어오름.
 - 10) 마음을 가라앉혀 연고자 하는 것을 찾음. 곧 정성을 다하여 책을 읽음.
 - 11) 성현이 하던 일. 곧 학문에 힘쓰며 도덕적으로 살던 일.
 - 12) 낚시터.
 - 13)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뚜렷함.
 - 14) 중국 후한 때 은사(隱士)였던 엄광.
 - 15) 한나라 왕실.
 - 16) 이끼가 자란 물가 모래톱 위.
 - 17) 석양 무렵의 안개.

6

春服(춘복)을 식로 입고 詠歸臺(영귀대)¹⁾에 올라오니
 麗景(여경)은 古今(고금) 업서 淸興(청흥)²⁾이 절로 하니
 風乎詠而歸(풍호영이귀)³⁾를 오늘 다시 본 듯 하다
 臺下蓮塘(대하연당)⁴⁾의 細雨(세우) 잠썩 지닌가니
 碧玉(벽옥)갓흔 너분 님헤 흐치느니 明珠(명주)⁵⁾로다
 이러흔 淸景(청경)⁶⁾을 보암 즉도 헛다마는
 濂溪(염계)⁷⁾ 가신 後(후)에 몇몇히를 다닌 게오
 依舊淸香(의구청향)⁸⁾이 다문 혼자 남아고야
 紫煙(자연)⁹⁾이 빗긴 아래 瀑布(폭포)를 멀리보니
 丹崖(단애)¹⁰⁾ 노퍽 굻히 긴넉히 걸려는듯
 香爐峯(향로봉)¹¹⁾ 그 어덕오 廬山(여산)¹²⁾이 예뻐던가
 澄心臺(정심대)¹³⁾ 구어보니 鄙吝(비린)¹⁴⁾ 텃 胸襟¹⁵⁾(흉금)이
 새로운 듯 헛다마는
 寂莫空臺(적막공대)¹⁶⁾에 외로이 안자시니
 風淸鏡面(풍청경면)¹⁷⁾의 山影(산영)만 잠겨잇고
 綠樹陰中(녹수음중)¹⁸⁾에 윈갓식 슬피운다
 徘徊思憶(배회사억)¹⁹⁾ 하며 眞跡(진적)²⁰⁾을 다 차즈니
 濯纓臺(탁영대)²¹⁾ 淵泉(연천)²²⁾은 古今(고금)업시 말다마는
 末路紅塵(말로홍진)²³⁾에 사름마다 紛競(분경)²⁴⁾ 커든
 이리 조흔 淸潭(청담)²⁵⁾애 濯纓(탁영)홀 줄 그 누 알리

- 1) 시문을 즐겨 외우던 언덕.
- 2) 맑은 흥과 운치.
- 3) 바람을 쐬고 시를 읊고 돌아오던 일.
- 4) 높은 언덕 아래에 있는 연꽃 핀 연못.
- 5) 빛나는 구슬, 여기서는 연잎에 떨어지는 빗방울.
- 6) 아름다운 경치.
- 7) 송나라 주돈이의 호.
- 8) 옛날과 다름없는 맑은 향기.
- 9) 햇빛에 비친 보랏빛 안개.
- 10) 붉은 절벽.
- 11) 금강산의 제일봉.
- 12) 중국 장시에 있는 명산.
- 13) 마음을 맑게 하는 언덕.
- 14) 더럽고 인색함.
- 15) 가슴 속.
- 16) 조용한 빈 언덕.
- 17) 바람이 없어 물결이 거울처럼 잔잔함.
- 18) 푸른 나무 그늘.
- 19) 어슬렁거리며 생각함.
- 20) 실제 남은 자취.
- 21) 갓끈을 씻는 물가 언덕.
- 22) 깊은 연못.
- 23) 말세의 티끌 같은 세상.
- 24) 어지럽게 싸움.
- 25) 맑은 연못.

봄옷을 새로 입고 영귀대에 올라오니
 고운 경치 고금 없어 맑은 흥이 절로 이니
 바람 쏘고 시 읊기가 오늘 다시 본 듯하다.
 언덕 아래 연꽃 연못 세우 잠깐 지나가니
 벽옥 같은 넓은 잎에 흠어지니 구슬이라.
 이러한 경치를 본 즉도 하다마는
 염계 가신 후에 몇몇 해를 지낸 게요.
 맑은 옛 향기만 다만 혼자 남았구나.
 보라 안개 비긴 아래 폭포를 멀리 보니
 붉은 바위 높은 끝에 긴 내가 걸렸는 듯
 향로봉이 어디인가, 여산이 여기인가
 정심대 굽어보니 더럽혀진 가슴 속이
 새로운 듯하지만
 적막한 언덕 위에 외로이 앉았으니
 바람 잦은 물결 위로 산 그림자 잠겨 있고
 짙은 나무 그늘 찾아 온갖 새 슬피 운다.
 거닐면서 생각하며 옛 자취를 다 찾으니
 탁영대 깊은 못은 옛날처럼 맑다마는
 어지러운 티끌 속에 사람마다 다투거니
 이리 맑은 못에 때 씻을 줄 그 뉘 알리.

7

獅子巖(사자암) 노피 올라 道德山(도덕산)을 바라보니
 玉蘊含輝(옥온함휘)¹⁾는 어제론 덧하다마는
 鳳去山空(봉거산공)²⁾하니 杜鵑(두견)만 나죄운다
 桃花洞(도화동) 느린 물리
 不畱晝夜(불사주야)³⁾하야 落花(낙화)조차 흘러오니
 天台(천태)⁴⁾인가 武陵(무릉)⁵⁾인가 이 싸히 어딘게오
 仙蹤(선종)⁶⁾이 아득하니 아모딘 줄 모르로다
 仁者((인자)도 아닌 몸이 무슨 理(이)를 알리마는
 樂山忘歸(요산망귀)⁷⁾하야 奇巖(기암)을 다시 비겨
 川原遠近(천원원근)⁸⁾에 景致(경치)를 살펴보니
 萬紫千紅(만자천홍)⁹⁾은 비단 빗치 되어 잇고
 衆卉群芳(중훼군방)¹⁰⁾은 谷風(곡풍)에 놀러오고
 山寺鍾聲(산사종성)¹¹⁾은 구름 밧기 들리느다
 이러흔 形勝(형승)¹²⁾을 范希文(범희문)¹³⁾의 文筆(문필)인들
 다 서넉기 쉬울넉가
 滿眼風景(만안풍경)¹⁴⁾이 客興(객흥)을 도오논듯
 任意逍遙(임의소요)¹⁵⁾하며 짐즉 더디 도라오니
 舉目西岑(거목서잠)¹⁶⁾의 夕陽(석양)이 거의로다

사자암 높이 올라 도덕산을 바라보니
 구슬에 쌓인 빛은 어제인 듯 하다마는
 봉황 떠난 빈 산중에 두견만 낮에 운다.
 도화동 흐른 물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낙화조차 흘러오니
 천태인가 무릉인가, 이 땅이 어딘 게오.
 신선 자취 아득하니 아무덴 줄 모를레라.

- 1) 구슬에 쌓였으나 맑은 빛을 품고 있음. 이연적의 학덕.
- 2) 봉황이 날아가 산이 비어 있음. 곧 이연적의 죽음을 뜻함.
- 3) 밤낮으로 쉬지 않음.
- 4) 중국 절강의 산.
- 5) 무릉도원.
- 6) 신선들이 놀던 자취.
- 7) 산을 좋아하여 돌아갈 곳을 모름.
- 8) 멀고 가까운 시내와 들판.
- 9) 갖가지 아름다운 색의 꽃들.
- 10) 수없이 많은 꽃들의 향기.
- 11) 절의 종소리.
- 12) 뛰어난 지세나 풍경.
- 13) 송나라 문필가인 범중엄의 자.
- 14) 눈에 가득 차는 아름다운 경치.
- 15) 정해진 데 없이 돌아다님.
- 16) 눈을 들어 서쪽을 바라봄

어질지도 않은 몸이 무슨 이치 알 리마는
산이 좋아 다시금 돌아갈 줄 모르더니
기이한 바위에 기대어 의지하여
멀고도 가까운 시내와 들판을 살펴보니
아름다운 여러 꽃은 비단 빛이 되어 있고
수많은 꽃향기는 계곡 바람에 실려 오고
산속 절 종소리는 구름 밖에 들리누나.
이러한 풍경을 범회문의 문필인들
다 써내기 쉬울런가.
눈 가득 풍경이 객흥을 돋우는 듯
정처 없이 거닐다가 짐짓 더디 돌아오니
눈을 들어 서쪽 보니 석양이 거의로다

8

獨樂堂(독락당) 고쳐 올라 左右(좌우)를 살펴보니
 先生(선생)¹⁾ 風彩(풍채)을 親(친)히 만나 뵈옵는듯
 羹牆(갱장)²⁾의 儼然(엄연)³⁾하야 俯仰歎息(부양탄식)⁴⁾하며
 當時(당시)에 하시던 날 다시곰 思想(사상)하니
 明牕靜几(명창정계)⁵⁾에 世慮(세려)⁶⁾을 이즈시고
 聖賢書(성현서)⁷⁾의 着意(착의)⁸⁾하야 功效(공효)⁹⁾를 일워너여
 繼往開來(계왕개래)¹⁰⁾하야 吾道(오도)¹¹⁾를 발키시니
 吾東方 樂只君子(오동방 낙지군자)¹²⁾는 다몬 인가 너기로라
 하물며 孝悌(효제)¹³⁾를 本(본)을 삼고 忠誠(충성)을 뱌허너여
 聖朝(성조)¹⁴⁾의 나아들러 稷契(직설)¹⁵⁾의 몸이 되야
 唐虞盛時(당우성시)¹⁶⁾를 일월가 바라더가
 時運(시운)¹⁷⁾이 不幸(불행)하야 忠賢(충현)¹⁸⁾을 遠斥(원척)¹⁹⁾하니
 듯느니 보느니 深山窮谷(심산궁곡)²⁰⁾엔들
 뉘 아니 悲感(비감)²¹⁾하니
 七年長沙(칠년장사)²²⁾이 不見天日(불견천일)²³⁾하고
 閉門深省(폐문심성)²⁴⁾하야 道德(도덕)만 닦그시니
 邪不勝正(사불승정)²⁵⁾이라 公論(공론)이 절로 이러
 尊崇道德(존숭도덕)²⁶⁾을 사람마다 할 줄 아라
 江界(강계)²⁷⁾는 謫所(적소)²⁸⁾로되 遺化(유화)²⁹⁾를 못느 이저

- 1) 이언직.
- 2) 자나 깨나 눈에 선함.
- 3) 언행이 의젓하고 짐작음.
- 4) 높고 낮은 곳을 바라보며 탄식함.
- 5) 밝은 창과 고요한 책상.
- 6) 세상에 대한 근심.
- 7) 성현의 언행을 기록한 책.
- 8) 잊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둠.
- 9) 공을 드린 보람
- 10) 繼往聖開來學. 지나간 성인을 계승하여 다가오는 후학의 길을 열어줌.
- 11) 우리들의 도, 여기서는 유학.
- 12) 우리나라의 훌륭한 군자들.
- 13)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간의 우애.
- 14) 성군이 다스리는 조정.
- 15) 순 임금 대의 명신.
- 16) 요순의 태평시대.
- 17) 당시의 운세.
- 18) 충성스럽고 현명한 신하.
- 19) 멀리 내쫓음.
- 20) 깊은 산속의 험한 골짜기.
- 21) 슬픈 느낌.
- 22) 중국 한나라 충신 가의가 곤은 말을 했다가 장사 땅에서 7년간 귀양을 했다는 고사.
- 23) 하늘의 밝은 태양을 보지 못함..
- 24) 문을 굳게 닫고 반성함.
- 25) 그른 것이 옳은 것을 이기지 못함.
- 26) 도덕을 높이 받들어 숭배함.
- 27) 평안도 지명.

窮巷絕域(궁항절역)³⁰의 祠宇(사우)³¹쫓차 서워시니
士林趨仰(사림추양)³²이야 더욱 닐러 무엇하리

독락당 고쳐 올라 좌우를 살펴보니
선생 풍채를 친히 만나 뵈옵는 듯
의젓한 언행을 자나 깨나 생각하고
하늘을 우러르며 땅을 보며 탄식하며
당시 하시던 일 다시금 생각하니
밝은 창 책상 앉아 세상 근심 잊으시고
성현서에 뜻을 두고 공부를 이뤄내어
옛 성현을 계승하여 후학을 이끄시어
우리 도를 밝히시니
우리나라 군자는 다만 인가 여기로다
하물려 효제를 본을 삼고 충성을 베풀어 내
조정에 나아 들어 직설의 몸이 되어
요순의 태평 시대 이룰까 바라더니
시운이 불행하여 충현이 쫓겨나니
듣는 이 보는 이 깊은 산 골짜기인들
뉘 아니 슬퍼하리
칠년 귀양 밝은 하늘 보지 못할 지라
문 닫고 돌아보아 도덕만 닦으시니
그름이 옳음을 이기지 못하여
공론도 절로 일어
도덕을 숭상하기 사람마다 할 줄 알아
강계는 적소로되 끼친 교화 못내 잊어
궁벽한 시골에도 사당을 세웠으니
선비들의 추앙이야 더욱 일러 무엇하리.

28) 귀양지.

29) 끼친 교화.

30) 궁벽한 시골 고장.

31) 사당, 여기서는 경현 서원.

32) 선비들이 나아가 우러러 받들.

9

紫玉泉石(자옥천석)¹⁾우회 書院(서원)을 디어두고
 濟濟青襟(제제청금)²⁾이 絃誦聲(현송성)³⁾을 이어시니
 濂洛群賢(염락군현)⁴⁾이 이 싸회 되왔는닷
 求仁堂(구인당) 도라 올라 體仁廟(체인묘)⁵⁾도 嚴肅(엄숙)홀샤
 千秋血食(천추혈식)⁶⁾이 偶然(우연) 아닌 일이로다
 追崇尊敬(추송존경)⁷⁾을 홀소록 못넌하야
 文廟從享(문묘종향)⁸⁾이 그 더욱 盛事(성사)로다
 吾東方(오동방)⁹⁾ 文憲(문헌)¹⁰⁾이 漢唐宋(한당송)중국에 비기로되
 紫陽雲谷(자양운곡)¹¹⁾도 어즈버 여기로다
 洗心臺(세심대) 느린 물에 德澤(덕택)이 이어 흘러
 龍湫(용추)¹²⁾ 감흔 곳에 神物(신물)¹³⁾조차 잠겨시니
 天工造化(천공조화)¹⁴⁾ | 그 더욱 奇異(기이)코야
 無邊眞景(무변진경)¹⁵⁾을 다 좇기 어려울식
 樂而忘返(낙이망반)¹⁶⁾하야 旬月(순월)¹⁷⁾을 淹留(엄유)¹⁸⁾하며
 固陋(고루)¹⁹⁾흔 이 몸애 誠敬(성경)²⁰⁾을 넘이하야
 先生文集(선생문집)을 仔細(자세)히 살펴보니
 千言萬語(천어만언)²¹⁾ 다 聖賢(성현)의 말삼이라
 道脉工程(도맥공정)²²⁾이 日月(일월)갓치 불가시니
 어드운 밤 길히 明燭(명촉)²³⁾잡고 연뎃하다

-
- 1) 자옥산의 풍경.
 - 2) 재주가 많은 선비들.
 - 3) 거문고와 글 읽는 소리.
 - 4) 송나라 주돈이가 제자들을 가르치던 염계와 정자 형제가 후학들을 길러내던 낙양.
 - 5) 옥산서원의 집채.
 - 6) 영원히 끊이지 않고 지내는 춘추제향.
 - 7) 세월이 흐를수록 우러러 모심.
 - 8) 공자를 모신 신위에 제향함.
 - 9) 우리나라.
 - 10) 문화.
 - 11) 송나라 주희가 머물러 공부하던 곳.
 - 12) 용이 잠긴 듯한 연못.
 - 13) 신령스런 존재, 곧 용.
 - 14) 하늘의 오묘한 재주.
 - 15) 끝없이 훌륭한 경치.
 - 16) 즐기느라 돌아가기를 잊음.
 - 17) 한 달.
 - 18) 오래 머물.
 - 19) 견문이 좁고 고집이 셈.
 - 20) 정성과 공정.
 - 21) 모든 말과 글.
 - 22) 유학의 연원과 공부의 과정.
 - 23) 촛불.

자옥산 풍경 위에 서원을 지어 두고
 선비들의 거문고 글 읽는 소리 이어지니
 어진 많은 선비들이 이 땅에 모였는 듯
 구인당 돌아 올라 체인묘도 엄숙할사
 쉽 없는 제향도 우연 아닌 일이로다.
 우러러 모심도 할수록 못내 하여
 문묘에 제향함이 그 더욱 성사로다.
 우리나라 문화가 한당송에 비기로다.
 자양 운곡도 어즈버 여기로다
 세심대 내린 물이 덕택에 이어 흘러
 용추 깊은 곳에 신물조차 잠겼으니
 조물주의 조화가 그 더욱 기이하다.
 끝없는 경치를 다 찾기 어려울 새
 즐기느라 돌아옴을 한 달 거웃 잊어버려
 고루한 이 몸에 정성을 널리 하여
 선생 문집을 자세히 살펴보니
 천만 마디 모두가 다 성현의 말씀이라
 공부하는 과정이 일월같이 밝았으니
 어두운 밤길에 촛불 잡고 간 듯하다

110

진실로 이 遺訓(유훈)¹⁾을 腔子裏(강자리)²⁾에 가득 담아
 誠意正心(성의정심)³⁾하야 修誠(수성)⁴⁾을 넘게 하면
 言忠行篤(언충행독)⁵⁾ 하야 사람마다 어질로다
 先生遺化至極(선생유화지극)함이 엇더하뇨
 嗟哉(차재)⁶⁾ 後生(후생)들아 趨仰(추앙)⁷⁾을 더욱 높혀
 萬世千秋(만세천추)에 山斗(산두)⁸⁾갓치 바리사라
 天高地厚(천고지후)⁹⁾도 有時盡(유시진)¹⁰⁾하려니와
 獨樂堂淸風(독락당청풍)은 가업실가 하노라

진실로 남기신 뜻 강자리에 가득 담아
 마음을 가다듬고 뜻을 옳게 세워
 진실 되게 말을 하고 몸가짐을 두텁게 해
 사람마다 어질도다.
 선생의 가르침이 지극함이 어떠하뇨.
 아아, 후생들아 추앙을 더욱 높여
 천년 만년 태산과 북두 같이 바라보라.
 높은 하늘 두터운 땅 다할 때가 있으려니와
 독락당 맑은 기운 끝없을까 하노라.

-
- 1) 죽은 이(이언적)가 남긴 훈계.
 - 2) 뱃속.
 - 3) 자신의 뜻을 진실 되게(성의)하여 마음을 바로 정하는 것(정심).
 - 4) 마음을 가다듬고 뜻을 성실하게 함.
 - 5) 말을 진실되게 하고 행동을 두텁게 함.
 - 6) 아아,
 - 7) 높이 받들어 우러러봄.
 - 8) 태산과 북두칠성
 - 9) 하늘은 높고 땅은 두터움.
 - 10) 다할 때가 있음.